

# 명사와 결합한 접두사의 사전적 고찰

-표준국어 대사전과 고려 한국어 대사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MA. Nguyen Thi Nguyet Minh**

**MA. Le Hai Yen**

*University of Languages & International Stud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urvey on native Korean prefixes according to two Big Korean dictionaries to make a list of prefixes associated with nouns. By analyzing the 67 native Korean prefixes, we deduced the consistency of prefix definitions between the two dictionaries. Except for inconsistent prefixies: 'kal 갈-, kon 건 -, Kol 골 -, nut Nut -, tta 따 -, maeng 맹 - 살 sal - compared 소 -, sil 실 -, ae 애 -, jak -un 작은 -, k'un 큰 - so rae 도래 - ', we divided into two types: in combination with noun and in combination with both noun and verb. Thereby, we summarized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he word creation of prefixes. Based on the statistical methods, we have listed the prefixes which have capability of making up 6 - 167 new derivative nouns; Based on the analytical methods of extension meanings, we have listed the prefixes which have up to 10 meanings. Finally, in this paper, through analyzing examples, we summarized 8 characteristics of prefix associated with nouns in Korean.

## **I. 들어가기**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어휘에서는 명사가 항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어사전에 의하여 어휘량과 어종을 검토해본 결과에서 9품사체계 중심으로 보면 명사는 항상 1위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등재된 전체어휘는 372,207개인데, 그 중 명사는 334, 129개이라 89.7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서 김홍규는 대규모 언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약 4만여 개의 신어를 발굴하여 표제어로 등재한 것과 17만 4천여 개의 복합어 표제어에 대한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밝혔다고 하였다. 그 중에 용언은 활용형까지 포함하면 22,731개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명사를 계산하지 않아도 명사의 비중이 아주 큰 것이 사실이다. 명사에 관한 조어법에서 합성명사와 파생명사가 있다. 파생명사만 관심을 가지고

이양혜(2002)의 ‘한국어 파생명사 사전’에서 접두파생법에 의한 파생된 명사수는 3529개가 있으며 그 중, 접두사와 결합하는 대상이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접두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체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조어론에 언급하면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파생법은 접사에 의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접요사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어 접사체계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있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명사보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명사에 대한 관심도 및 연구사의 수가 많지 않는다. 접두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들은 거의 전부가 품사를 바꾸지 않은 사실 때문에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에서 활발한 품사 바뀜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고 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의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파생명사를 이루어질 때 그동안 주로 접미사를 중심으로 연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명사파생법에서의 접두사만을 중심으로 한자어접두사를 제외하고 고유어접사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 바탕

접두사에 대한 연구는 파생법으로부터 언급해야 한다. 파생법에 대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학자는 주시경(1910, 1911)인데 파생법에 의한 파생어의 보기 가운데 접미사만 나오지 접두파생어의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좀 더 늦게 출현했지만 현대국어의 접두사와 접두파생법의 개념에 근접한 초기의 연구로 최현배(1929)에는 ‘그 뿌리에 붙어서 더러는 그 뜻을 보태고, 더러는 그 자격을 바꾸는 구실을 하는 조각’을 ‘씨까지’라고 밝혔다. 결합되는 위치에 따라 이를 다시 ‘앞가지(前枝)’, 뒷가지 (後枝), 속가지(中枝)로 구분하였으며 그 역할은 각각 ‘뜻더하는 것’ (加意的)과 ‘말 만드는 것(造語的)’과 ‘소리고루는 것’(調音的)으로 정의하였다. ‘어찌씨 앞에 붙는 앞가지’에 대해서는 항목은 설정해 놓았으나 용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름씨와 풀이씨 앞에 붙는 앞가지 두 종류가 있는데 명사를 파생하기 위한 접두사, 즉 이름씨 앞에 붙는 앞가지가 있다. 그런 바탕으로 접두사에 관하여 후행어기의 품사에 따라 ‘이름씨 앞에 붙는 앞가지, 풀이씨 앞에 붙는 앞가지, 어찌씨 앞에 붙는 앞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현대국어에서의 접두사 분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창돈(1975)에서는 접두사는 虛辭化 현상에 속하는 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접두사는 곧 복합사의 조어유형에 불외하며, 이 복합사에서 선행어사의 語義消失이나 혹은 語義稀薄化, 또는 전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본래부터 한국어에 접두사로서 존재하던 어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접두사의 특성을 고찰하여 하위분류를 한 것으로는 옥익환(1984), 김순임(1987) 등이 있으며 접두파생법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말 형성의 기제로 쓰일 수 있음을 밝힌 생성 형태론적 연구는 여영택(1971), 김정식(1985)이 있다. 그러나 단어 형성 규칙이라는

것은 단어를 생성해 내는 규칙이라기보다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접두사에 대한 연구에서 생산성을 검증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어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설로만 그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접두사 설정 기준과 그 목록 제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서도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접두사 범주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본 이유도 있다. 또는 기준 설정 과정동안 접두사와 비슷하게 보이는 요소의 존재를 넘어가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현배 (1987)에서 자립어와 접사 구별의 어려움과 관형사와 접두사의 경계 나누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또는 허웅(1983)에서는 어간과 접두사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처리한 바가 있었다. 현대한국어의 접두사는 형태·의미적 측면에서 보아 공시·통시적으로 독립어형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그 자체로서는 전혀 뜻을 밝혀내기 힘든 것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어휘가 다른 말에 습관적으로 붙어 쓰임으로써 형태·의미적으로 독립성을 잃어서 접두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접두사는 형성과정에서의 특성상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접두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접두사의 설정 기준과 인접 범주와의 구별, 그에 따른 접두사의 목록제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왕의 연구들에서 설정 기준에 대한 논의로는 김계곤(1968)을 비롯하여 이재성(1997), 김덕신(1997), 김창주·안효경(1997), 정영혜(1997), 송철의(2001), 이양혜(2002) ... 등이 있다.

김계곤(1968)에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접두사의 처리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접두사로 목록이 올라있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접두사 여부를 가려 목록을 확장하였다. 한글 학회 편 [한글 소사전] (정음사)과 이희승 편 [국어 대사전](민중서관)에 수록 처리된 접두사 목록의 비교를 통하여 기존에 뚜렷한 기준이나 의심 없이 사전에 접두사로 처리되었던 어휘들을 짚어 내어 접두사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 최근 15여년 이래 접두사 설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재성(1997)에서는 접두사가 결합하는 품사에 따라 체언과 용언에 연결한 2가지의 접두사로 나누면서 접두사의 설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덕신(1997), 김창주·안효경(1997)에서는 형태, 의미, 기능 3측면으로 나누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정리하였다. 또는 기왕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바탕으로 정영혜(1997)에서는 각 접두사 설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사전에서 등재한 접두사체계와의 관련에서 국어사전에서의 접두사 처리문제에

대하여 김창섭(1998)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접두사 관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가 있었다. 그 외, 박형익(1999)에서는 여러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접두사 목록을 상호 비교하여 각 접두사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경우도 있다.

더 포괄적으로 송철의(2001)에서 접두사의 판별기준을 세우면서 접두사와 부사, 관형사, 명사, 용언어간, 어근을 구별해냈다.

파생명사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은데 주로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 연구들이다. 접두에 의한 파생명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파생명사의 구조와 의미 등 방면을 연구하여 그 중에 접두에 의한 명사파생법도 언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접두에 의한 파생명사에 대해 직접 연구하는 논문이 단 이양혜(2002)논문이다. 이양혜(2002)에서 [한국어 파생명사의 재분류와 목록화]의 주제로 명사 파생접두사 설정을 위한 이론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남한과 북한 6개의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여 사전별 차이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관형사형+명사’와 ‘부사+명사’인 4가지 파생명사의 구조를 밝혔다.

상기의 접두사 설정기준을 연구하는 연구들은 모두 충분한 접두사목록을 제시하기 위한 최종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인정하는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한국어대사전(2009)에서 등재되는 접두사를 중심으로 두 사전에 한하여 한국어의 접두사목록을 점검하여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 목록을 정리·논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III.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목록 검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놓아 사전에 나타나는 접두사 목록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접두사 목록의 확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1999, 2000)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이 가장 최신에 발간된 고려한국어대사전(2007)의 접두사 목록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 두 사전에서 등재된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목록을 언급하기 전에 각 사전에 실려 있는 모두 고유어 접두사 목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보면 연구자들마다 접두사의 개념이 쓰이면서도 불이치한 점도 있으니 접두사의 목록 역시 일관성이 없음은 사실이다. 개념이 일정치 않으며 접두사 설정기준 설정하기에도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사전별의 접두사수도 고정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접두사의 분류에 대하여 크게 분류하면 고유어 접두사와 한자어 접두사로 분류된다. 고유어접두사에 대하여 박견일(1982)에서 제시한 202개중에 95개의 한자어 접두사외에 107개가 고유어접두사이다. 송철의, 김창섭, 이남순(1992)의 연구에서

102개의 파생접두사를 수록하여 배열하였다. 김창섭(1996)의 연구에서 성격과 규모가 비슷한 국어의 대표적인 세 사전(L,G,U 사전)에서는 총 134개 항목이 접두사로 올려졌는데 그 세 사전에서 똑같이 접두사로 올린 것은 그 중의 80개뿐이다.

박형익(1999)에 따르면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1988)에는 81개, 신기철·신용철 편 삼성출판사 새 우리말 큰 사전(1989)에는 102개,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 사전(1992)에는 120개, 이기문 편 동아 새 국어사전 (1994)에는 105개, 김민수 외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1996)에는 105개, 연세대학교 언어 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1998)에는 74개의 고유어 접두사가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접두사는 총 144개이며, 6개의 국어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선정된 접두사는 44개라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고려한국어대사전이 2009년에 발간됨으로 아직 이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국립국어연구원이 편한 표준국어대사전(1999, 2000)은 오래전에 발간되어서 이 사전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송철의(2001)과 정호성(2000)의 논의가 있다. 정호성(2000)에 따르면 국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경우에는 접두사의 목록이 204개이며, 그 중 고유어 접두사의 수는 114개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송철의(2001)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의하여 고유어 접두사수는 82개를 밝혔다. 그 다음에는 박형우(2004)도 표준국어대사전을 사례로 연구하였고 결과는 송철의(2001)과 비교해보면 접두사목록이 대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접두사‘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필자가 그러한 연구결과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려한국어대사전(2009)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접촉하여 접두사 목록을 수집하였다. 여기서 표준국어대사전(2001)을 접촉했을 때 CD room 판에서 검색을 통해 작업을 하였다. 직접 검토하고 명사를 파생하기에 기여하는 접두사 목록만 뽑아 보고자 하여 총 64개이다. 그리고 이 목록을 고려한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된 접두사목록의 59개와 합쳐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다. 이 표에서 명사어기만과 결합하는 접두사 뿐 아니라 그 똑같은 접두사인데 동시에 용어와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도 포함한다.

순서	표준			고려			순서	표준			고려
	접두사	표준	고려	접두사	표준	고려		접두사	표준	고려	
1	가시-	v	v	23	맹-	v	X	45	을-	v	v
2	갈-	X	v	24	메-	v	v	46	외-	v	v
3	강-	v	v	25	몰-	v	v	47	웃-	v	v
4	개-	v	v	26	민-	v	v	48	작은-	v	X
5	건-	X	v	27	밭-	v	v	49	잔-	v	v
6	겉- 겉- 겉-	v	v	28	벌-	v	v	50	줄-	v	v

약칭 표준국어대사전: 표준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  
표시  
v: 있다  
X: 없다

7	골-	<b>X</b>	<b>v</b>	29	불-	<b>v</b>	<b>v</b>	51	진-	<b>v</b>	<b>v</b>
8	군有-	<b>v</b>	<b>v</b>	30	불-	<b>v</b>	<b>v</b>	52	짓-	<b>v</b>	<b>v</b>
9	날-	<b>v</b>	<b>v</b>	31	빛-	<b>v</b>	<b>v</b>	53	짜-	<b>v</b>	<b>v</b>
10	늦-	<b>v</b>	<b>X</b>	32	살-	<b>v</b>	<b>X</b>	54	쪽-	<b>v</b>	<b>v</b>
11	덧-	<b>v</b>	<b>v</b>	33	선-	<b>v</b>	<b>v</b>	55	차-	<b>v</b>	<b>v</b>
12	도래-	<b>v</b>	<b>X</b>	34	소-	<b>v</b>	<b>X</b>	56	찰-	<b>v</b>	<b>v</b>
13	돌-	<b>v</b>	<b>v</b>	35	쇠-	<b>v</b>	<b>v</b>	57	참-	<b>v</b>	<b>v</b>
14	들-	<b>v</b>	<b>v</b>	36	수-	<b>v</b>	<b>v</b>	58	큰-	<b>v</b>	<b>X</b>
15	들-	<b>v</b>	<b>v</b>	37	숫-	<b>v</b>	<b>v</b>	59	통-	<b>v</b>	<b>v</b>
16	따-	<b>v</b>	<b>X</b>	38	실-	<b>v</b>	<b>X</b>	60	푹-	<b>v</b>	<b>v</b>
17	떡-	<b>v</b>	<b>v</b>	39	알-	<b>v</b>	<b>v</b>	61	한-	<b>v</b>	<b>v</b>
18	막-	<b>v</b>	<b>v</b>	40	암-	<b>v</b>	<b>v</b>	62	햇-	<b>v</b>	<b>v</b>
19	만-	<b>v</b>	<b>v</b>	41	애-	<b>X</b>	<b>v</b>	63	해-	<b>v</b>	<b>v</b>
20	말-	<b>v</b>	<b>v</b>	42	얼-	<b>v</b>	<b>v</b>	64	헛-	<b>v</b>	<b>v</b>
21	맞-	<b>v</b>	<b>v</b>	43	엇-	<b>v</b>	<b>v</b>	65	헛-	<b>v</b>	<b>v</b>
22	맨-	<b>v</b>	<b>v</b>	44	온-	<b>v</b>	<b>v</b>	66	홀-	<b>v</b>	<b>v</b>

상기에 제시한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목록을 비교해보면 불일치한 접두사들은 ‘갈-, 건-, 골-, 늦-, 따-, 맹- 살-, 소-, 실-, 애-, 작은-, 큰-, 도래-’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데 고려한국어대사전에서 없는 접두사는 ‘늦-, 따-, 맹-, 살-, 소-, 실-, 작은-, 큰-’이고 ‘갈-, 건-, 골-, 애-’등은 고려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없다.

① ‘늦-, 살-, 작은-, 큰-, 도래-’의 경우

(1) 늦-

(표준)에서 명부 명사 앞에 붙어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고 설명하였다.

(고려)에는 ‘늦’은 표제어로 되지 않으며 접두사라고 표시하지 않다. 하지만 ‘늦가을’ ‘늦김치’ 등은 ‘늦+가을’, ‘늦+김치’ 구조를 설명한 바가 있었다.

‘늦-’의 경우에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늦다’의 어간임은 분명하고 어근과 결합하여서도 ‘늦다’의 의미가 그대로 쓰여 단어를 형성한다, 또한 다른 접사에 비하여 그 생산성이 높아 여러 단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다만 형태가 어미의 연결 없이 직접 체언이나 용언과 결합하는 것이 문제다. ‘늦-’은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바에 다른 국어사전에서 예외 없이 모두 접두사로 파악하고 있다.

(2) 따-

(표준)에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땅’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따’는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과 같은 뜻으로 한 ‘따’가 제주도와 한남방언에서 ‘땅’을 가리킴을 설명하였다. (표준)에서 등재된 표제어가 ‘따별/따꽃’이 있지만 (고려)에서는 없다.

(3) 땡-

(표준)에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무것도 섞지 않은’의 뜻으로 ‘땡물’, ‘땡탕’ 등 표제어가 있다. 이는 송철의(2001)에서 ‘땡-’도 접두사로 인정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고려)에서와 이양혜(2002), 박견일(1982)의 연구에서는 고유어접두사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4) 소-

(표준)에서는 접두사로 인정하고 ‘소-’는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려)에서는 한자어로서 ‘소’는 접두사로 인정하지 나머지 ‘소’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명사로 본다. 그래서 (표준)에서는 ‘소간/소고기/소귀/소귀신/소백정/소뺨/소뿔’등의 구조가 [접두사+명사어간]인데 (고려)에서는 합성명사, 즉 [명사1+명사2]의 구조 나 [명사+의+명사]의 구조로 삼는다.

소간 = [소+간]

소고기 = [소+고기]

[소의 간]

(5) 실-

(표준)에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느다란’, ‘얇은’의 뜻으로 접두사로 인정한다. 등재된 표제어들은 ‘실개천/실눈/실버들/실뱀장어/실핏줄/실구름/실금/실비’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실’을 접두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6) 작은- & 큰-

(표준)에서 ‘작은’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가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작은-’는 (고려)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다.

작은개 = 작\_은+개

작은개미핥기 = 작\_은+개미+핥+기

즉, (고려)에서 ‘작은’은 ‘작-’은 ‘은’과 결합하여 관형어로 된다.

‘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려)에서 ‘큰’= ‘크-’+ ‘ㄴ’로 분석하였다.

‘작은-’과 ‘큰-’의 경우,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작다’와 ‘크다’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이러한 의미 차이 정도는 ‘크다’나 ‘작다’의 의미에서 유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다. 실제로 ‘큰아버지’ 나 ‘작은아버지’와 같은 경우에서 합성어로 처리되거나

[관형어+어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예가 있다.

(7) 도래-

(표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동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고려) 사전에서 ‘도래’는 명사이고 ‘동근 물건의 대두리’라고 설명한다.

즉, 의미에서는 양 사전이 똑같지만, 한쪽이 접두사, 한쪽이 명사로 설정되어 신어를 만드는데에 (표준)에서 파생어이면 (고려)에서는 합성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② ‘갈-, 건-, 골-, 애-’의 경우

(1) 갈-

가. 갈걸이

나. 갈가마귀, 갈가자미, 갈거미, 갈까마귀

다. 갈고등어, 갈돔, 갈철광

고려한국어대사전에서 접두사로 인정하지만 단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봄으로써 ‘갈’을 접두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갈’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첫 번째는 ‘가을’의 준말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갈’이 명사임으로 접사와 결합하면 어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와 이러한 뜻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예를 보면 ‘갈가마귀, 갈가자미, 갈거미’의 뜻은 ‘작은’이나 ‘갈색을 띤 흰색의’의 뜻이다. 이 경우에는 명사로 보지 않고 접두사로 봐야 한다. (다)의 예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갈’의 뜻은 ‘갈색’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보지만 이는 한자어‘褐’로 표시된다.

(2) 건-

가. 건어물, 건포도, 건오징어

나. 건다짐, 건울음

다. 건물, 건짜증, 건하품

(고려)에서는 3가지의 의미가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첫째는 먹을 것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말린’의 뜻으로 하면 ‘건’는 한자어 접두사이다. 따라서 (가)는 본고의 연구 범위 밖이다. 둘째의 뜻은 ‘겉으로만 드러나는’의 뜻이 있으면서, (표준)에서도 (나)의 표제어가 등재된다. (표준)은 ‘건-’은 고유어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고려)의 (나)처럼 용법과 의미를 다 포함되어 있는 ‘건다짐’과 ‘건울음’이 존재한다. (다)의 경우는 (고려)에서 표제어가 다 되어 있는데 (표준)에서 뜻과 똑같지만 ‘건물’에서의 ‘건’이 한자어이고 ‘건짜증’과 ‘건하품’이 없다. ‘건-’의 용례를 검토해보니 대부분 한자어‘건-’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건-’이 고유어 접두사로써 생산성이 높지 않은 반면에 한자어

접두사라고 보는 것이 더 쉽다.

(3) 골-

가. 골샌님, 골생원, 골선비, 골양반, 골예수

나. 골살이

‘골-’도 ‘건-’처럼 한자어로부터 나타난 용례가 고유어 ‘골’로부터 나타난 용례보다 많이 있다. (고려)에서 ‘하던 일이 몸에 배어 다른 물정을 잘 모르는’의 뜻으로 설명하여 ‘골샌님’, ‘골생원’등 단어가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의 예문들에서 (표준)에서 다시 찾아보면 ‘골’이 그 예문들의 경우 다 한자어다.

(나)에서는 ‘골살이’는 고을살이의 준말이다. (표준)

또 (표준)에서 ‘골어귀’가 있는데 그 의미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어귀. 평지와 골짜기와의 경계 지대이며 골벽이 끝나는 곳이다’이고 ‘골어귀’와 비슷하다.

(4) 애-

가. 애같이, 애당초(애초)

나. 애호박, 애나무, 애벌레, 애충각

국어사전에서 거의 접두사로 인정하지만 단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봄으로써 ‘애’를 접두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애’의 의미에 따라 여기서 첫 번째는 ‘아이’의 준말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명사임으로 접사와 결합하면 어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나)와 이러한 뜻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의 예를 보면 ‘애당초’의 뜻은 ‘맨처음/첫’(The very first time)이다. 이 경우에는 명사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려한국어대사전에는 접두사로 보는 것을 인정한다.

#### IV. 접두사의 분포

이 부분에서는 양 사전에서 불일치한 접두사를 모두 다 뺀 후 일치한 접두사목록만 의해 명사 어기와만 결합한 접두사와 체언 및 용언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로 나눠 연구하였다.

접두사와 어기의 결합구조를 보면 보통 세 가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즉 [접두사 + 체언], [접두사+용언]과 [접두사+{체언, 용언}]이다. 여기서 체언은 명사, 용언은 동사/형용사를 가리키는 물론이다. 그중에 세 번째가 용어와 체언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가 나머지 두 가지를 비해서 파생어수가 적어더라도 생산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2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범위에서 [접두사+용언]구조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접두사+체언]과 [접두사+{용언, 체언}]구조만 2가지로 분류하여 살핀 것이다.

순위	접두사	파생어수
명사어기와만결합		
1	참-	167
2	개-	114
3	잔-	101
4	홀-	97
5	웃-	88
5	민-	88
6	한-	82
7	수-	81
7	날-	81
8	푹-	70
9	쇠-	64

10	암-	60
11	군-	50
12	돌-	43
13	찰-	39
14	만-	38
14	쪽-	38
15	숫-	36
16	햇-	35
17	맨-	33
18	불-	22
19	밭-	21
20	홀-	19
21	말-	17

21	줄-	17
22	떡-	15
23	짹-	13
23	메-	13
24	햇-	12
24	온-	12
25	가시-	10
26	들-	9
26	선-	9
27	진-	7
28	올-	6
28	벌-	6
28	차-	6

순위	접두사	파생어수
명사및동사용언어기와결합		
1	헛-	122
2	맞-	110
3	덧-	106
4	막-	98
5	외-	74

6	들-	66
7	통-	48
8	빋-	44
9	엇-	41
10	알-	40
11	강-	35
12	겉-	34

13	올-	32
14	얼-	19
15	깃-	12
16	해-	10
17	몰-	5

파생어수의 양을 보면 첫째 [접두사+체언]구조에서 접두사 ‘참-’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두 파생어의 수는 167개이다. 접두사‘참-’과 결합하는 명사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식물을 가리킨 명사들이다. 예를 들면 ‘참꽃/참새/참가막조개/참가시나무....’이다. 그래서 접두사‘참-’과 결합하여 파생된 파생어가 동/식물 명사의 어휘량이 많은 만큼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접두사‘개-’의 경우를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접두사‘개-’도 그의 의미에서 ‘일부 동식물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질이 떨어지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로 설명하고 용례에서 ‘개풀/개가시나무/개국수나무/개꽃...’등이 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최소 6개에서 최고 167개 정도의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두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파생어의 수에 의해 생산성이 낮은 접두사와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를 볼 수 있다.

또 접두사의 생산성을 판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그 접두사의 의미확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기에는 파생어수에 따라서 생산순위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접두사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생산순위를 계산한다.

순위	접두사	의미의수
명사어기와만결합		
1	날-	10
2	숫-	5
2	웃-	5
3	찰-	4
3	개-	4
3	민-	4
3	수-	4
3	푹-	4
4	만-	3
4	한-	3
5	균-	2

5	선-	2
5	쇠-	2
5	암-	2
5	진-	2
5	짜-	2
5	쪽-	2
5	참-	2
5	햇-	2
5	홀-	2
6	가시-	1
6	들-	1
6	들-	1
6	떡-	1

6	말-	1
6	맨-	1
6	메-	1
6	발-	1
6	벌-	1
6	불-	1
6	온-	1
6	잔-	1
6	줄-	1
6	차-	1
6	햇-	1
6	홀-	1

순위	접두사	의미의수
명사및동사용언어기와결합		
1	걸-	7
2	통-	5
3	들-	4
3	막-	4
3	외-	4

3	강-	4
3	빋-	4
4	맞-	3
4	헛-	3
4	알-	3
4	엇-	3
5	덧-	2

5	몰-	2
5	얼-	2
5	깃-	2
5	해-	2
5	울-	2

상기에 제시한 생산순위를 측정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언급하였다. 파생어의 빈도수 서열의 숫자가 있을 때 아주 낮다거나 아주 크다는 것과 의미역의 확장에 의해 생산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를 생산성을 단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휘량도 증가하고 새로운 단어가 낱말이 생기기 때문에 한 접두사가 어느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 V.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특성

1. 접두사는 일음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2음절 접두사는 드문 편이다. 여기서 2개의

사전에서는 일치하게 접두사로 인정 하는 2음절 접두사는 ‘가시-’밖에 없다. 접두사의 대부분이 1음절이기 때문에 기왕연구에서는 단음절성을 가짐은 많은 학자들은 접두사를 설정기준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2. 파생어나 합성어는 둘 다 형태론적 현상인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다. 그래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어기의 왼쪽에 위치하는 요소만으로 구별된다. 접두사 중에 명사에서 접두사화 과정을 거쳐 접두사로 변경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명사와 접두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별이 쉽지가 않는다. 상기의 용례를 검토해보고 기왕의 연구에서 어휘적 범주를 가진 명사가 어근의 자격을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접두사로서 단어를 파생했는지의 구별이 어려운 형태소들과 비교해보는 결과는 명사와 동일 형태를 가진 접두사는 ‘개-, 돌-, 불-, 짝-, 바깥-’등이다. 이러한 접두사들의 의미역 중의 하나가 명사의 의미와 용법을 가지거나, 명사에서 접두사화하거나 명사와 동일 형태이거나 원래 명사의 축약형태이었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3. 문장에서는 자립하여 쓰일 수 없고 명사어기와 결합하여 명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접두사는 관형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접두사는 어휘적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소이면 관형사는 그 자체가 어휘적 범주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예가 적지 않아서 사전적 처리에서도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해서 선행연구에서 ‘첫’ ‘옛’, ‘된’ 등이나 (표준)과 (고려)인 두 사전에서 나온 ‘작은’, ‘큰’예문처럼 많이 논의하였다.

4. 접두사의 한 설정기준으로써 ‘접두사는 뒤에 어근과 결합하여 하나의 낱말(접두파생어)를 만들므로 이들 사이에 휴지가 불가능하며, 두 형태소 사이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고 최현배(1937, 1985)에서 밝혔다. 하지만 ‘소’와 ‘쇠’의 경우에는 ‘쇠’가 [명사+의]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이 관점이 맞으면, 즉 ‘소’와 어기 가운데에 ‘의’가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나타난 단어가 파생어가 아니라 알 수 있겠다. 표준한국어대사전(2001)에서 ‘쇠’는 접두사로 보이지만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5. 접두사가 원래 한 품사의 축약형이니 역시 그의 원래 뜻과 같은 경우에 접두사인지 그 품사인지 구별이 어려운 데가 있다. 상기에서 ‘밭’과 ‘바깥’의 경우에 명사로부터 접두사화인데 용언으로부터 접두사화가 있을 뿐 부사로부터 접두사화 인 ‘맞’과 ‘마주’의 경우도 있다.

6. 접두사와 결합하는 명사의 유형은 주로 사람의 자질을 지닌 명사와 동식물 명사들이고 무생물에 속하는 명사어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들과 결합하는 접두사는

그 명사의 어휘량적으로 많은 만큼 파생어수가 많은 것이다. 사람을 가리킨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는 ‘가시-, 군-, 날-, 만-, 받-, 불-, 솟-, 옷-, 짝-, 핫-, 홀-, 훌-’등이 고 동식물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는 ‘개-, 돌-, 들-, 떡-, 만-, 말-, 메-, 민-, 쇠-, 수-, 솟-, 암-, 참-, 풋-, 햇-, 걸-, 통-, 들-, 알-, 울-, 해-’등이고 수형물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들은 ‘날-, 강-, 맨-, 민-, 알-, 군-, 한-, 외-, 훌-, 막-, 핫-, 선-, 진-, 덧-’등이다.

7. 일반 [접두사+어기] 구조외 에 [접두사 + [접두사+명사어기]]구조와 [접두사 + [용언+명사화 접미사]]구조가 있다. 전자의 구조로써 ‘암캐/들암탉/들암컷/들암태지/들암소/들암말, 훌훌소리/훌훌씨, 해암탉...’등 예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후자의 구조를 보면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라면 다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접두사가 용언과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계속 명사파생접미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용언과 명사파생접미사와 먼저 결합한 다음 접두사를 붙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실은 이 구조 자체가 아직 접두사가 명사와 결합하는 방식이다.

강울음/덧붙임/막잡이/맞잡이....

8. 접두사는 의존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컷/숫컷: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지 아니하는 쪽

군것: 없어도 좋을 쓸데없는 것/ 끼니 외에 먹는 간단한 음식.

날것: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채소 따위

참것: 참된 것.

암컷: 암수의 구별이 있는 동물에서 새끼를 배는 쪽. 【암ㅎ+것】

풋것: 그해에 새로 익은 곡식, 과일,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아직 덜 익은 곡식, 과일,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햇것: 해마다 나는 물건으로서 그해에 처음 난 물건.

햇것: 솜을 두어서 만든 옷이나 이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통것/헛것: 솜을 두어서 만든 옷이나 이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서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특징이라 하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접두파생명사구조에서의 후속어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 바가 있었다. 접두사가 붙은 어근이 명사이든 용언이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의존명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관점은 이재성(1990), 정영혜(1997), 김종훈(1973), 김창주·안효경(1997) 등에서 밝혔다.

## VI. 결론

본고에서 국립국어연구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2001)과 고려대학교가 편찬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고유어 접두사목록을 검토하였다. 그를 통해서 총 67개의 접두사를 뽑아 제시하였는데 그중 두 사전에서 일치하는 접두사외에 ‘갈-, 건-, 골-, 늦-, 따-,

맹- 살-, 소-, 실-, 애-, 작은-, 큰-, 도래-'인 접두사라고 인정하는 데에 불일치한 것이다.

두 사전에서 불일치한 접두사를 빼고 일치한 접두사목록만 집중하여 명사어기와만 결합한 접두사와 명사, 용언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접두사 등 2가지로 나눈 다음 접두사의 수와 그의 생산순위를 검정하여 제시하였다. 파생어수 점검 방법에 의해 최소 6개에서 최고 167개 정도의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두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접두사의 의미 확장 점검 방법에 의해 의미역이 가장 많은 접두사가 10 가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생산순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를 생산성을 단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두사와 그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접두사의 특징과 결합한 명사어기의 특징인 8가지를 밝혔다.

#### 참고문헌

- 고영근,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기초 문법 (한국어 연수 교재, Vol.1997 No.-, [1997])
- 金圭善, 國語 接頭派生法(의 研究 (국어교육연구, Vol.3 No.1, [1971])
- 金東鉉, 국어 품사 분류 연구 (論文集, Vol.10 No.1, [1998])
- 김창섭,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Vol.8 No.1, [1998])
- 김창섭,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Vol.16 No.-, [1995])
- 김창섭, 형태론 (국어학 연감, Vol.1997 No.-, [1997])
- 김창주·안효경, 현대국어 접두사 확립기준에 대하여 (産業開發研究, Vol.5 No.-, [1997])
- 김창주·안효경, 접두사와 합성어의 선행어기와의 구분
- 남기문·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 탐출판사
- 박형익, 국어 사전에서의 고유어 접두사 (국어국문학, Vol.- No.125, [1999])
- 朴健一, 國語 接頭辭의 研究 (교육논총, Vol.2 No.-, [1982])
- 박형우,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학, Vol.28 No.-, [2004])
- 박형익, 국어 사전에서의 고유어 접두사 (국어국문학, Vol.- No.125, [1999])
- 변영수,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양상 (한말연구, Vol.- No.10, [2002])
- 송철의, 파생어(派生語)형성과 통시성(通時性)의 문제 (국어학, Vol.12 No.1, [1983])
- 송철의,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학술대회주제발표논문) (배달말, Vol.- No.39, [2006])
- 송철의, 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東洋學, Vol.27 No.-, [1997])
- 송철의, 국어의 형태론적 특질 (배달말, Vol.28 No.1, [2001])
- 송철의, 派生語形成에 있어서의 制約現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Vol.- No.99, [1988])
- 안주호,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語學研究, Vol.32 No.1, [1996])
- 李光鎬, 派生接尾辭의 生産성과 派生語 集합의 빈도특성-(語文研究, Vol.34 No.3, [2006])

이양혜, 한국어 특이형태 파생명사 형성 연구(언어과학, Vol.12 No.1, [2005])  
이관규, 국어 접두사 재고 (어문논집, Vol.28 No.1, [1989])  
이재성, 접두사 설정 기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Vol.29 No.-, [1997])  
정경애, 우리말의 접두사 되기 (국어국문학, Vol.21 No.-, [2002])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2000년 봄)  
조영희, 국어의 접두사 고찰 (새국어교육, Vol.18 No.1, [1974])  
조창규, 국어 접두사 연구 (Ⅱ) (國語 國文學 研究, Vol.14 No.-, [1991])  
최현배, 우리말본 (1935)  
한영목, 관형사와 접두사에 관한 연구 (論文集, Vol.8 No.-, [1985])

#### 사전류

국립국어연구원(1999, 2000)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2009) [고려한국어대사전]  
이양혜(2002) [한국어파생명사사전]

